



신한금융그룹 임직원, '온기창고' 방문… 생필품 후원

신한금융그룹이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쪽방촌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및 그룹사 CEO들은 '온기창고'에 방문해 18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온기창고 진열대에 후원 물품을 진열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인하대-한진그룹, '대한민국 1도 올리기' 캠페인

인하대학교는 1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한진그룹의 후원으로 올해 6회를 맞이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인하대학교 학생, 조영우 총장과 교직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마을을 찾아 이웃 주민에게 직접 연탄 4000여장을 전하며 '대한민국 1도 올리기' 캠페인 펼쳤다. /인하대학교



현대삼호중 주부대학 총동창회, 사랑의 김장 나눔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대학 총동창회가 동절기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나누며 온정을 전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일 기숙사 식당에서 신현대 사장, 김옥조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주부대학 회원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제주항공,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제주항공 임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2일 서울시 관악구 삼성동에서 임직원 6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모은 연탄 2만4800여장과 함께 우유팩 다시 쓰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우유팩 1만2400여개를 재활용한 재생화장지를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제주항공

현대차

한재필 영업부장 '판매거장' 영예

현대자동차가 한재필 인천트럭지점 영업부장(사진)을 지난 달 29일 기준으로 상용차 누계 판매 2500대를 달성해 상용차 '판매거장'에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상용차 '판매거장'은 상용차 누계 판매 2500대를 돌파한 우수 영업사원에게 주어지는 칭호로 한재필 영업부장은 1990년 입사 후 33년 만에 역대 5번째로 상용차 '판매거장'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이웃사랑성금 500억 쾌척… '동행 비전' 이어간다

삼성전자 등 23개 관계사 힘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기탁

삼성이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500억원을 나누며 '동행 비전'을 이어갔다.

삼성은 지난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50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삼성이 전달한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삼성은 반도체 사업 적자 등 실적 하락 속에서도 연말 성금 규모를 전년과 같이 유지했다. 1999년 100억원으로 시작해 2004년부터 200억원, 2011년 300억원에서 2012년 500억원으로 누적 기부액만 8200억원에 달한다.

삼성은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올해 성금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삼성전기▲



삼성글로벌리서치 제현웅 CSR연구실 부사장(왼쪽부터), 삼성전자 황준 사원대표,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최영무 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김병준 회장, 삼성전자 서준영 사원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연말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물산▲삼성엔지니어링▲제일기획▲에스원 등 23개 관계사가 함께 모았다. 각 사별 승인 절차를 거치며 준법 영도 지켰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3개 관계사 임직원이 모은 기부금도 포함해 의미를 더했다. 최근에는 연말 성금과

는 별개로 '삼성 기부페어'를 통해 일상 기부 문화를 확대하고 내년 기부 계획을 먼저 신청받기도 했다.

아울러 삼성은 올해에도 NGO 8곳과 함께 2024년도 탁상 달력 29만대를 제작해 임직원들과 나눌 예정이다. 삼성은 2019년부터 NGO 활동을 담은 달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NGO를 지원하고, 임직원들에게도 사회

공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김병준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그 어느때 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아졌다"며 "삼성이 기탁한 소중한 성금은 우리 이웃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보다 밝은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우리은행, 순환경제 실천 앞장

환경공단·E-순환거버넌스 MOU 노후 자동화기기 약 100여대 기부

우리은행은 한국환경공단과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E-Waste Zero,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내용연수가 경과하였거나 폐기 예정인 전기·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 중인 '모두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프로그램에 기부하고, E-순환거버넌스는 기부받은 제품을 다양한 분야에 재활용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실천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전자제품 회수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전국영업점에서 사용 중인 자동화기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회수·재활용을 위해



우리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환경공단,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 후 안병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왼쪽부터), 조병규 우리은행장, 장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올해 내용연수 경과 자동화기기 약 100여대를 은행권 최초로 기부한다.

조병규 은행장은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자원순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나아가 친환경금융 확산에도 힘써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ESG 비전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CJ제일제당, 대리점 동행 우수기업 선정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 등 고평가

CJ제일제당이 지속가능경영(ESG)을 실천하기 위해 펼친 상생 협력의 노력을 또 한 번 인정받았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제도다.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비

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립에 노력한 점, 대리점 업무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성환 고려대 교수, 과기부 장관상 수상

고려대학교는 이성환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사진)가 지난 1일 오타위에서 열린 'SW R&D 우수성과 및 유공자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성환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인 'SW스타랩: 이동 환경에서 뇌-컴



퓨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지능형 패턴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인공지능 SW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 논문 발표, 특허 등록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기술이전 등의 탁월한 성과를 창출했다.

/이현진 기자 lhj@

현대차, '현대키즈모터쇼' 온라인 접수

'미래도시' 주제 그림 공모

어린이들이 상상하는 미래도시를 실현시켜주는 그림 공모전이 개최된다.

현대자동차는 어린이들이 상상하는 '미래도시'를 주제로 한 그림 공모전 '제8회 현대키즈모터쇼' 온라인 접수를 4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16년 세계 최초 어린이 상상력 모터쇼 콘셉트로 시작해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현대차의 대표적 성장세대 대상 캠페인으로 작품 공모 수, 전시 방문객 수가 매년 증가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상상 속 미

래도시를 그려주세요'로 선정했다. 미래도시, 미래 항공 이동수단, 미래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의 관심과 친밀감 형성을 유도해 배우는 과정을 경험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대키즈모터쇼'에 출품된 작품은 미술, 교육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 150점이 선정된다. 이후 최우수 부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3점, 현대자동차 대표 이사상 3점' 총 6개 작품을 최종 선정한다. 특히 6개 수상작은 2024년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디지털로 구현해 일반인의 관심과 체험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부음

▲이덕광씨 별세, 유홍련씨 남편상, 이영호(현대건설 홍보실장)·이영환씨 부친상, 박나연·이윤미씨 시부상 = 2일, 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30분,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240-7161

▲이만구씨 별세, 이경우·진우(더벨 편집국장)·진숙씨 부친상, 박태환씨 장인

상, 이현정·김혜정씨 시부상=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5일, 장지 경기도 양주 선영, 02-2227-7500

▲최희평씨 별세, 최유란·유정(작가)·유경·유진씨 부친상, 박현웅·조오섭(민주당 국회의원)·박태오씨 장인상=3일 오전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장공실, 발인 5일 오전 8시20분, 062-250-4455.